상하이 古代史 '열쇠' 불탑 속 유물 화제

사리구슬 · 동전 등 전문가 '고대 허브' 짐작

칭룽 고대 불탑 저장고서 佛寶 · 동전 등 다수 발견 학계 "과거 무역허브 증거"



천 지에 발굴책임자는 12월 8일 대중에 칭룽 불탑 발굴성과를 보고하고 "상하이는 1,000년 전부터 해양 교역의 허브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China Daily



전문가들은 발굴 유물 중 불보 '구슬사리'를 가장 비중 있게 소개했다. 해당 유물은 불교 사리함 양식과 제식을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로도 각광받는다.

지난해 발굴된 상하이 '칭룽 고대 유적' 내 롱핑사(朗屛寺) 불탑서 불보(佛寶) · 동전 · 다기(茶器) 등 유물이 발견돼 고고학계가 흥분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물이 "상하이가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해양 허브'였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내다봤다.

영문 일간지 'Shanghai Daily'는 12월 9일(현지시간) "2015년부터 진행된 롱핑사 불탑 발굴 결과, 불탑 지하층 저장고서 황금와불상 · 아쇼카 왕정기 소(小)불탑 · 동전 수만 개 등 발견됐다"며 "전문가들은 12월 8일 대중에게 유물을 공개하고, 고대 상하이의 번성했던 상업 · 불교 · 건축문화의 증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유물 공개 현장서 발굴책임자 천 지에 상하이 박물관 소속 고고학자는 "저장고는 넓이 1.8㎡ · 높이 1.4m 크기로 내부엔 중국 한무제(기원전 141~87) 당시 동전인 '오수전'을 비롯해 당 · 송 시대 동전 수만 개, 차주전자 · 찻잔 · 차항아리 등 다기, 청동거울, 은거북, 은수저 등이 빼곡 들어있었다. 특히 황금 와불상 · 아쇼카 대왕불탑 2점 · 수정구슬 사리 등 귀중한 불보(佛寶)들이 많았다"며 "이로써 고대 상하이 지역이 해양 교류의 허브로서 상업과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불교 유물인 수정구슬 3개와 사리함를 "가장 눈여겨 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사리용기의 기원은 인도의 '피푸라하와탑'이지만 용기의 형태와 재료는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리함 발전양상 연구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천 지에 책임자는 "둥근 구슬은 대승불교서 부처님 사리신앙의 상징이다. 롱핑사 구슬사리는 청동병으로 봉합된 후 나무 · 철 · 은 · 금 4개 상자에 담겨 다중 잠금 처리됐다"며 "후속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리함 제작시기와 당시 불교제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롱핑사 불탑은 총 규모 7개 층 · 50m 높이로 상하이 발굴사상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해당 발굴은 2010년부터 상하이 박물관이 주도한 칭룽 일대 유적조사의 가장 최근 성과로, 학자들은 이 지역이 "정교한 강줄기 네트워크와 바다로 닿는 교역지 덕분에 당 · 송 왕조 동안 양쯔강 남부서 부촌을 형성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사찰이 사회문제 토론의 장으로

일본 서정사, 지역주민-전문가 토론 공간 제공

법회 공간이 아닌, 각종 사회현안을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일본의 '산케이(產經) 신문'은 12월 9일자 기사를 통해 자살방지 대책, 성소수자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서정사(西正寺)를 소개했다.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 있는 정토진종혼간지파(淨土眞宗本願寺派)의 서정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정기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불상이 안치된 서정사 본당에는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을 열고 토론회를 갖는다. 약 30명 인원이 참가하며 전문가의 강연이 끝난 뒤에는 4~5명씩 모여 토론회를 벌인다. 참가자 대부분은 사찰 신도가 아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고, 불교행사가 대부분이었던 사찰은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사찰에서 법회가 아니라 왜 사회문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절의 부주지인 나카히라 료고(中平了悟 · 39) 스님은 "사회를 배우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에는 없었다. 사람들이 다양한 '물음'을 갖고 방문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답변했다.



서정사서 각종 현안을 토론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삶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을 전문가들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사찰을 지역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한 대학생 나미야마 요시미(浪山喜美 · 22) 씨는 "대학 강의와 달라 신선하다.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 할 때의 어려움도 알게 돼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명상 안 하는 정토진종 사찰서 명상클래스를?

美 일본 정토진종 사찰, 신도 수 늘리려 티베트 · 선불교 차용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인 타운에 있는 일본인 사찰이 급감하는 신도를 늘리기 위해 교회처럼 입식 예불을 보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라디오방송 'KALW'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불교사원(Buddhist Church of San Fransisco, 이하 BCSF)이 줄어드는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교회의 입식 예법과 명상 클래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CSF는 19세기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들이 세운 불교사찰이다. 일본불교 종파의 하나인 정토진종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승려가 결혼과 육식을 해도 되는 등 출가교단보다는 비승비속(非僧非俗)을 지향하는 종파다.

메이지 유신 후 미국으로 건너간 정토진종 신자들은 그 어떤 일본인들보다도 프로테스탄트(로마 가톨릭서 분리된 신교도)적인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BCSF도 불교사찰이지만 교회처럼 입식으로 예불을 보는 등 기독교적 색채를 띠는 게 특징이다.

일본에는 정토진종을 따르는 신자들이 매우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세기 미국으로 이민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 당시 그들의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편견을 갖기에 좋았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정토진종 사찰은 매우 비공개적으로 일본과 미국인 불자들을 받았다.

1950년대만 해도 BCSF는 많은 신도들로 매우 분주한 사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후손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샌프란시스코 일본인타운의 인구수 자체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토진종을 기반으로 하는 BCSF는 미국에서 더 잘 알려진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방식을 차용해 명상클래스를 도입했다.



19세기 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들이 세운 불교사찰 BCSF가 최근 교회의 입식 예법과 명상 클래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사진출처=KALW

BCSF의 레오 조슬린 스님은 "BCSF는 불교지만 정토진종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명상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명상열풍의 대세를 따라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CSF 원로인 진 후카나가는 "BCSF와 정토진종을 샌프란시스코 시와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 작은 일본인 타운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불교단체, 불교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급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 선발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 승려와 불교 관계자들이 결성해 만든 불교그룹(회장 오타니 기하쿠, 진종불광사파 총장)이 불교학 전공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2월 10일 보도했다.

불교그룹은 9일 교토시(京都市) 시모교구(下京區)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불교를 배우는 유학생 4명에게 각각 장학금 25만 엔(약 250만 원)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불교그룹이 개최한 명승명가서예전에서 작품의 매각 대금 및 기부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4명의 유학생은 류코쿠(龍谷) 대학 박사과정의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를 비롯해 오타니(大谷) 대학 석사과정의 베트남 유학생 응우엔 퉁 쟝(NGUYEN TUONG GIANG) 스님, 하나조노(花園)대학원 린펀먀오(林芬妙) 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학부과정 중국인 유학생 양루오웨이(楊若薇) 씨이다.

이중 한국인 유학생 김연지 씨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친 후 일본 류코쿠 대학으로 유학, 이리사와 타카시(入澤崇) 교수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Borobudur)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유학생들. 왼쪽부터 김연지 씨(한국), 양루오웨이 씨(중국), 린펀먀오 스님(대만), 응우엔 퉁 쟝 스님(베트남).

한편 불교 신자들과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결성된 불교 친목단체 불교그룹은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및 네팔 초등학교 건설 지원, 일본 쿠마모토(熊本) 지진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주성원 객원기자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김수소

진액 하수오 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054-842-0106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1개월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